

##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이정*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킬로나 Kelowna
파견대학	Okanagan College	기간	2017. 1. 22(일) ~ 2. 12(일)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Okanagan College 가 있는 켈로나는 작은 도시이다. 학교는 큰 가게 같은 것은 없지만 커피를 사먹을수 있는 작은 카페나 학생식당이나 도서관1층에서 먹을 것을 사먹을수 있다. 동양인들도 꽤 많고 한국 학생보단 일본 학생들이 정말 많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우리는 분반을 하지 않고 13명에서 같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였다. 수업은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해 11시20분에 점심을 먹고 오후 수업은 3시 20분에 끝난다. 수업 내용은 주로 캐나다에 관한 내용을 배우거나 영어 회화 형식을 배운다. 특이한 점은 본교 캐나다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시간이 꽤 많았다. 우리의 담당 교사는 julie 였는데 친절히 알려주었다. 과제는 그닥 많지 않았는데 대부분 설문조사 하는 과제여서 홈스테이 가족이나 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였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액티비티에는 주로 스포츠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스케이트, 컬링, 스노우 보딩(스키), 하키 경기 관람을 하였다. 스케이트를 타러 갔을땐 장갑을 꼭</p>

	<p>가지고 가야한다. 스케이트장이 호수 바로 옆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 스노우 보딩은 켈로나 옆의 버논에 있는 스키장에 가서 탔다. 스노우보드나 스키같은 장비는 렌탈이 가능하나 스키복과 고글은 지참해야 한다. 그리고 리프트가 무조건 정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심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하키 경기는 Downtown 의 Prosper place 에서 관람했다. 캐나다에서 하키경기가 매우 대중적이기 때문에 끝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늦은 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홈스테이 가족이 데리러 왔다.</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큰 호수가 있고 분지 지형이라 항상 날이 흐리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매우 춥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딱히 위험한 일은 없었지만 5시만 되면 해가 완전히 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Downtown 의 Queens way 정류장 근처에는 노숙자들이 많고 술취한 사람들이 많아 항상 경찰관들이 대기하지만 주의해야 한다.</p>
숙소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o ) 외부 숙소( ) 기타( )</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홈스테이 가족은 엄마와 아들 그리고 개 한 마리 고양이가 두 마리였다. 딱히 특별한 규칙은 없었지만 샤워를 10~15분 안에 해야했다.</p>
식사	<p>학교식당( o ) 홈스테이 ( o ) 외부식당 ( o )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아침은 홈스테이 집에서 먹고 점심은 홈스테이 엄마가 싸준 도시락( 주로 샌드위치)를 먹거나 학교식당에서 먹었다. 학교가 끝난 후에는 친구들과 외식을 하였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나는 홈스테이 엄마가 건너편 중학교에서 근무하셔서 학교갈때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 하지만 켈로나의 버스 시설은 한국에 비해 좋지 않다. 정류장을 알려주는 전광판이나 방송이 나오지 않아서 구글맵이나 Transit 이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정류장을 찾아 내렸다. 하지만 버스 기사들이 대부분 친절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고싶다고 말하면 내릴 때 알려주기도 한다. 처음 1월달에는 버스 티켓을 학교에서 나눠주어서 사용했다. 2월달에는 교통 카드를 주어서 무제한으로 버스를 타고 다닐수 있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및 여행자보험	약 1,50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용돈	400,000 원	
합계	1,900,000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Okanagan College가 올해 처음으로 우리 학교와 결연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사전 정보가 없어서 난감했다. 학교에 가서 보니 학교측도 단기어학 연수를 한국학교와 맺은게 순천향대가 처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담당 선생님분들이 한국인이셔서 매우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불편한 점은 없었다. 겨울의 켈로나는 매우 춥기 때문에 따뜻한 패딩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눈이 굉장히 많이오기 때문에 장갑이나 부츠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 나는 대부분 저녁은 외식을 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모자랐다. 집에서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은 딱히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켈로나라는 도시에 대한 정보나 홈스테이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받지 못해서 처음엔 당황했었다. 하지만 가보고 나니 다들 친절히 우리를 맞아 주었고 나는 지내는 동안 불편한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다. 또한 같이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걱정했는데 나중에는 모두 다 친하게 지내서 불편함은 없었다. 켈로나는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쇼핑을 할 곳이 Orchard park mall 뿐이어서 그부분이 아쉬웠다. 또한 버스 배차간격이 6시 이후가 되면 1시간씩 있기 때문에 그런점이 불편했다. 하지만 동네들이 모두 예쁘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친절했다. 간혹 인종차별을 하는 가게나 사람들도 만났지만 폭력이나 욕설을 하는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술집에서는 id검사를 하는데 대부분 여권이 있으면 되지만 종종 두 개의 id를 필요로 하는 가게가 있어서 캐나다 보건증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영어로 외국인에게 말을 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진 것 같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무시 하지 않고 친절히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말을 거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원래 교환학생을 갈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타국에서 짧지만 3주정도 현지 생활을 해보고 나니 더욱 더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졌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학교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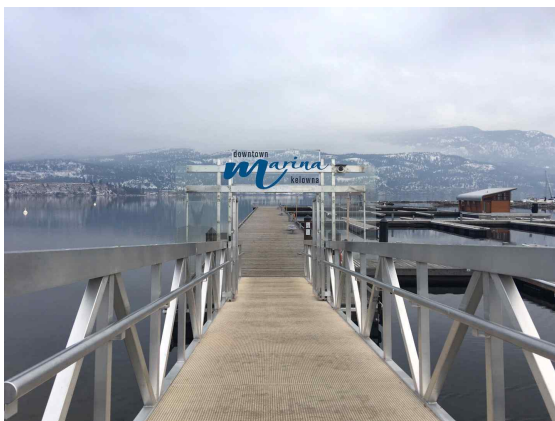
집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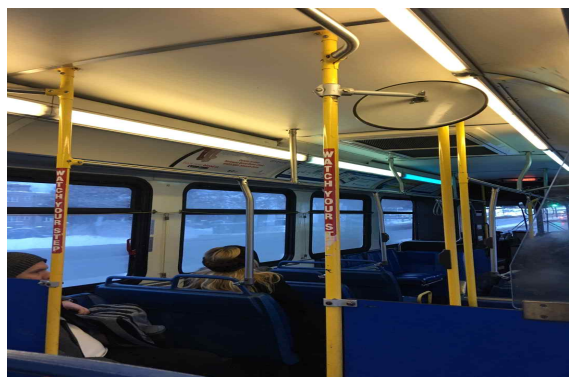
파초



랍스타와 스테이크



오카나간 호수



캐나다 버스